

조선시대 양반가의 주생활문화와 예의생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culture and courtesy of the Yangban in Chosun Dynasty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주영애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ans University

Instructor: Young Ae, Ju

〈목 차〉

I. 서론

II. 조선시대 양반가의 주생활문화와
예의생활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traditional main life culture of Korea and the relations with the traditional manners of Korean culture. According to studies of literature and an analysis, it shows the traditional courtesy can be linked to the housing structure of the Cho-sun dynasty which can be termed as a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 Korean society.

Housing culture of Cho-sun dynasty led to a most characteristic living culture. To be specific sit-down culture use norms, hierarchy and fittings can be sited. The sit-down culture in turn led to the main courtesies of greetings, table manners, etiquette for entrance and exit, the carefulness shown to elders, the self-restraint of speech and action and the manners between men and women, But in today's world there are realistic difficulties that make the application of these norms in everyday life difficult. But at the same time we must realize that there are traditional norms which overcome time and which affect today's norms.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한국의 전통적 주생활은 한반도의 지리적 기후적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온 하나의 독특한 생활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생활문화적 가치는 오래도록 한 국가나 민족 사회, 혹은 한 가정에서 추구해온 슬기로운 삶의 역사적 산물의 축적으로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형식을 띠며 문화전수과정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전승되는 문화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 주생활은 그 동안 불합리하고 비실용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주생활 문화적 차원에서의 재조명 작업을 미진했다고 사료된다.

주생활과 관련된 교과를 가르치는 입상에서도 전통 주생활의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그 생활상을 설명해 오지 않았는가 한다. 단지 한옥의 창호문양이나 난간 등과 관련된 장식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했을 뿐 그 한옥에서의 생활은 불편함이 대부분이며, 현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공간으로 여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자긍심이 결여되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환경개연론(environmental probabilism)은 환경과 인간의 행동사이에는 규칙성 있는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지형이나 기후, 사회환경이 우리의 생활이나 행동을 지배하지는 않으나 행동을 위한 기회나 대안의 잠재적 가능성은 여러가지로 존재한다고 본다.(이경희 외 2인, 1993, p.43)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과 환경과 문화는 독립적인 각각의 요소라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되고 의존적인 체계로서 서로 상호 작용한다고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전통적 주생활문화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 환경요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상호관련성을 갈파하지 못한 오류에서 출발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주생활문화에 대한 긍정적 재조명의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禮의 정성스런 표현을 통해 생활의 질서를 지키고,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들은 예의생활이나 규범적 생활로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禮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규범과 통제에서 이루어진 생활문화로 정착된 것이다.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예의생활은 한국의 전통적인 주생활문화와 관련성이 깊을것으로 사료된다. 인간의 행동이나 관습은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변화, 변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실집에서 볼때 예의생활의 일부분이 주생활문화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주생활문화와 예의생활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당시 주생활문화에 따라 예의생활은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통적 주생활문화속에서 통용되었던 예의생활이라 할지라도 현대의 주생활양식속에서도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예의생활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므로써 전통적인 주생활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내용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전통적 주생활문화의 특징은 고문헌을 고찰하고 조선시대 양반가를 중심으로한 유구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글의 창제가 이루어지고 생활문화가 크게 발달해 온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사회로 일컫는 조선시대에서 예의 및 규범 생활의 지침서가 되어온 생활규범서를 토대로 예의 생활 규범을 내용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생활문화의 특징은 좌식생활, 공간의 전용성, 남녀의 공간규범, 공간의 위계성, 창호의 반폐쇄성 등으로 구분지어 각각의 특징과 예의생활과의 관련성을 논의 하였다.

예의생활규범과 관련하여 참고로한 고문헌은 [소

학] [예기] [여사서] 소혜왕후[내훈] 송시열의[계녀서] 이덕무의 [사소절] 이이의 [격몽요결] 이익의 [성호사설] 이경근의 [고암가훈] 등이다.

본 고에서 고찰한 주생활문화와 예의생활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주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서술범위와 유구의 사례가 제한되어 있다.

II. 조선시대 양반가의 주생활문화와 예의생활

1. 주생활문화

주생활문화는 인간 생활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되고 소멸되기도 하며 창조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생활문화는 의·식생활까지도 담아내는 삶의 터에서 개개인과 가족이 만들어가는 생활문화의 중요한 영역이다. 대표적 전통사회라 일컫는 조선조의 주생활문화는 당시의 생활양식, 가족생활, 가치관, 주택구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1) 좌식생활

고구려의 벽화를 보면, 입식생활방식이 기록되어 있고 침대생활이 고구려의 상류사회에서는 영위되고 있었다. 이 생활방식은 고려, 조선조 초기, 중기, 말기까지도 부분적으로나마 계속되어 왔다.(신영훈, 1983, pp.126-134) 그러나 추운 북방에서 시작된 온돌과 습한 난방의 마루가 만나 한 집안에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추운 겨울이 긴 우리 나라의 경우에 마감을 잘 하면 온돌에서는 좌식생활이 가능했다. 이는 공간의 이용, 즉 전용성을 가능케 했으며, 이러한 것이 좌식생활의 정착을 더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홍형욱, 1992, p.241) 고 하겠다. 이러한 좌식생활은 한식가구에도 영향을 미쳐, 서양가구와는 달리 한식가구는 좌고(座高)를 척도로하여 나즈막하게 만들어졌다. 뿐만아니라 안방에는 다락문을 등지고 앉도록 보료를 깔고 그 위에 사방침을 놓았고 방의 윗목에는 손님이 앉기 위한 방석을 마련해 두었던 것은 전형적인 한식 좌식생활문화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온돌인 방바닥은 아래목, 윗목등으로 난방이 잘되는 곳을 분별하여 아래목에 주인이 정좌해 앉을 수 있는 보료를 두었던 것도 좌식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예이다.

2) 전용성

이는 주택평면의 다목적성이나 융통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특징은 주생활의 본질을 따지면 극히 모호한 생활상이고 불합리하다고도 생각되지만 주기보유 사정이 여의치 못한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건축공간의 효용성으로 볼때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정인국, 1985, p.246) 예를들어 중정의 기능상 역할을 보면 대부분 협소하여 정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면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택은 안동 의성 김씨 종택, 안동 임청각, 월성 향단 등이며 이경우 중정은 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평상시에는 상하의 의견교환처로서 또는 내객의 접근 방향으로 공동생활의 장소로 쓰였으며, 집안의 대소사-환갑, 혼인, 상사 등-가 있을 경우 차일을 쳐서 연회장으로 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주영애, 1992, p.88) 뿐만 아니라 안채의 대청은 추운 겨울 한철을 제외하고는 가족과 대소가의 모임이나 여성들이 둘러 앉아 떡을 빚거나 음식을 장만하기도 했으며, 바느질이나 다듬이 다림질하는 작업장소로도 활용이 되었으며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식량을 보관하는 뒤주 찬장 등을 놓는등 이 공간의 전용성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주영애, 1992, p.86) 상류주택에 부속된 별당 건물은 주택내에서는 사랑채의 연장으로 가장의 다목적인 용도로 쓰여졌다. 접객, 독서, 한유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강릉 선교장의 활대정이나 안동 임청각의 군자정, 예천 권씨 종택 별당 등이 있다. (정인국, 1985, p.248)

3) 남녀의 공간규범

조선시대 건국이념이며 기본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뿐만아니라 가정의 생활질서 및 주택건축에까지 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집은 가정생활에서 유학사상의 기본이 되었던 삼강오륜이 집약되어 인륜지도

에 의해 여과된 질서의 표현이 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道孝禮를 다하기 위한 공간이 형성되어 이른바 유교윤리의 실현장(홍형욱, 1982, pp.65-68)이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유별, 남녀칠세부동석, 남녀불공식 등을 강조하던 생활실서는 안채와 사랑채를 별채로 두어 남녀의 생활을 분리시켰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에서의 성별 공간분화는 당시 지어진 상류주택의 평면을 살펴보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정인국은 상류주택이 두개의 명확한 유형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안채와 사랑채의 연결상태를 볼때 월성 손씨 가옥이나 양진당, 충효당, 관가정, 이원용씨 가옥은 병렬형의 평면으로 일체형이라 볼 수 있으며, 양동마을의 이동기씨 가옥, 강릉의 임경당, 선교장은 ㄱ자형 평면으로 사랑채와 안채가 독립된 형을 보여준다. 여성 생활공간 이었던 안채는 윗채에 안방, 건넌방, 대청, 부엌, 아랫채에 광, 곳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안방과 가사공간인 부엌은 취사와 난방을 목적으로 연결되었고, 부엌에 이어 가장 근접한 곳에 곳간, 광등의 부수공간을 배치하여 주로 가사의 주된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사랑채는 주로 서재, 사랑대청, 사랑방, 사랑마당 등으로 이루어져 가사공간이라면 주로 난방을 위한 땀감을 보관하기 위한 광과 함실같은 공간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유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 중상류주택 건축시 남녀 생활규범으로 인한 공간의 분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안채공간의 대부분에서 그들의 소임으로 가사를 하도록 사랑채와 안채가 구성되게 하였고, 안채는 가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공간점유라는 면에서 볼때 안쪽과 바깥쪽으로의 남녀의 공간은 가정의 대표권을 가진 남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의 공간이 각각 외부와의 연결성을 가져 여성의 공간인 안채는 외부와의 거리뿐만 아니라 거처야 하는 과정을 좀더 많고 복잡하게 하여 그 연결성을 낮추어 외부와의 접촉빈도를 줄이도록(이종필 외3인, 1983, pp.17-18) 계획된 바를 알 수 있다. 이는 월성 손씨종가나 충효당, 이원용씨 가옥, 임경

당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존 유구들을 보면 큰대문과 사랑채로부터 안채에 이르는 중문 혹은 안대문은 남자들의 공식적 출입문이다.(연경당의 장락문, 구례 운조루의 중문, 해남 윤고산 고택의 안대문) 여자들은 바깥으로부터 대문이 아닌 별도의 작은 문과 뒷마당을 통과해서 안채로난 모방 앞의 부엌문(해남 윤고산 고택)을 이용했다. 또는 행랑채의 안변소 옆으로 난 작은 문과 안 사랑마당을 통과해서 곳간이 있는 안채로 통하는 문을 들어서야 했다.

4) 위계성

조선시대 주생활문화중 위계성은 당시의 신분제도와 가정에서의 가부장제, 가족주기, 가족내 서열 등과 관련성이 있던 바다.

조선시대의 가사규제를 보면, 양반은 신분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보장을 받고 있으나, 경제적 기반이 없어 실제로는 서민주택과 같은 주택에 기거하기도 하였으며, 중인계급은 경제적 조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따른 가사규제의 제약을 받아 양반들이 기거하는 상류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기거했던 상류주택에서 안채 사랑채와 같은 몸채에는 주인과 그 가족이, 그리고 행랑에는 노비들이 거처하여 공간의 위계를 이루었다. 특히 노비는 솔기노비와 외기노비로 나뉘는데 솔기노비는 행랑채에 기거하고 외기노비는 행랑채라 하더라도 청지기나 유모, 침모와 같은 사람은 몸채 가까운 중간행랑채(아래채)에 거주하여 동일가옥 내에서도 上의공간 中의공간 下의공간 으로서의 위계성을 이루었다.(주남철, 1980, pp.165-166) 행랑마당 사랑마당들은 그 바닥의 높낮이로 위계성을 보여주며 기단의 고저는 더욱 강한 위계성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내의 서열과 장자유대에 의해 주생활은 위계적 질서로 유지되었다. 사랑방도 큰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의 격을 다르게 해 놓으므로써 장자가 가부장으로서의 수엄기간을 견뎌하게 받아들이며 작은 사랑에 기거하도록 했다. 정읍 김씨가를 예로보면 큰 사랑은 두칸 크기로 우물천장이 있고 동향인데 비해 작은 사랑방은 서향이며 천장도 나즈막하게 紙天을

배운 보잘것 없는 방이다.(홍형옥, 1992, p.157) 크기에 따른 명칭으로 큰방 작은방이 있고, 위치에 따라서는 안방, 사랑방, 밖거리방, 옷방, 가운데 방 아래방 아래옷방(김홍식, 1985, p.285) 등의 명칭이 있는 것은 같은 방이라 하더라도 생활하는 기거자의 위치에 따라 당시의 위계질서가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5) 창호의 반폐쇄성

조선시대의 주택은 외적으로 폐쇄성을 가지나 내적으로는 개방성을 가진다.(주남철, 1985, p.263) 대지의 주위를 담장과 행랑으로 둘러싸고 그 속에 사랑채, 안채, 별당 등을 배치하고 이들 사이를 나지막한 담장과 중문간행랑으로 구획 하는데 가장 외부에 면한 바깥행랑에는 외부로 높은 들창만 있고 중앙에 솟을 대문만 설치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폐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채와 방은 대부분의 벽체가 창호로 구성되고 이들은 모두 접어서 들쇠에 매달게 되었기 때문에 담장 안에서는 극히 개방적이다. 이와같은 특성들은 전통한옥 창호의 반폐쇄적인 특성상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주택의 기밀성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하나 일단 필요시에는 덧문속에 쌍창, 쌍창속에 맹장지, 그 다음 무렵자나 방장, 병풍을 둘러침으로써 프라이버시는 확보될 수 있었다고 본다.

2. 주생활문화와 예의생활

앞에서 고찰한 주생활문화, 즉 좌식생활, 공간의 전용성, 남녀의 공간규범, 위계성, 창호의 반폐쇄성의 특징은 당시의 예의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문헌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좌식생활과 예의생활

전통사회에서의 좌식생활은 당시의 예의생활 실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좌식생활은 우리의 인사방법으로 앉아서 하는 절의 형식을 가능케 했다고 여겨진다. [가례집람] [성호사

설] [증보문헌비고] 등에는 고유의 인사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라의 풍속은 사람을 만나볼 적에는 반드시 꿇어 앉아 두 손으로 땅을 짚는 것으로 공손함을 삼는다.](이길표, 주영애, 1995, p.168)고 하여 과거의 절의 기본동작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익의 [성호사설] <인사문>에는 […부인의 절에 있어서는 두 손을 마주끼지 않고 다만 두손으로 땅을 짚고 무릎을 굽힐 따름이다.…우리나라에서는 시부모를 뵈는 적에는 역시 공수하여 땅에 대며 살쥔 속인다.] 고 하였다. [가례집람]에 나타난 6가지 절의 종류를 보더라도 신하가 임금에게 하관이 상관에게 어른께, 스승이나 주인에게, 친척끼리 절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은 인사예법은 좌식생활 속에서 더욱 공고히 되지 않았나 한다. 인사를 받은 분이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을때, 아랫사람이나 인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서서 예를 표하는 것은 공손한 자세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몸의 위치를 오히려 나죽히 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자세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절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의 위치에 따라 답례를 했다. 그러나 어른이 누워계실 때에는 절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돌아가신 분이 누워서 절을 받기 때문이다.(이길표, 주영애, 1995, p.180) 그러므로 절을 받는 기본적인 자세는 반드시 바르게 앉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인사방법은 입식생활로 변화해가는 생활 속에서도 정초나 어른생신 회갑 때 또는 조심스럽게 예를 갖추어야할 곳에서는 지속되고 있어 우리 민속의 생활문화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본다.

좌식생활은 식생활 예절과도 관계가 있었다고 본다. 식탁의 상차림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통사회에서는 반상을 중심으로 식생활이 이루어졌다. 책상반, 원반, 해주반, 호족반, 개다리소반 등 다양한 상의 모양이 전수되고 있고(조기홍 외, 1987, p.75) 이와 같은 상을 보관하던 장소는 대청에 시렁을 매어 올려 놓았던 예(월성 손씨 종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유성종의 문학에서 수학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정경세(1563; 병종 18~

1633:인조11)의, <양정편 음식>에 보면 식생활 예절이 잘 명시되어 있다. [상에서 약간 떨어져서 너무 상에 가까이 앉지 말고, 손가락을 들거나 저를 내뿔 때에도 급히 움직이지 말고...]라 하였다. 또한 [사소절]에는 [여러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는 남과 귀에다 입을 대고 속삭이지 말 것이다...식사를 막 끝마치고 아직 밥상을 물리지 않았을 때 일어서는 것은 점잖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좌식생활에서 가져야 할 바른 몸가짐에 대한 예를 지키도록 가르쳐 왔다. 이덕부의 [사소절] <동규편 동지>에 보면 [앉을 때는 반드시 기대 앉고 오래 앉는 것을 견디어 내지 못하여 무릎을 흔들고 손을 뒤척이고, 어른을 끼려 피하는 사람과 경솔하고 교만하고 거칠고 들떠서 항상 멀리 달아나려는 사람은 좋은 인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방석에 앉을 때도 발로 방석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서 앉도록 했다. 이는 입식생활에서 의자를 발로 밟고 앉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소학] <경신>에는 [...설 때는 몸을 한쪽 다리에만 의지하여 기울게 서지 않으며 앉을 때에 두다리를 뻗어서 이 모양으로 앉지 않으며...]라 하였으며 <명륜>에서는 [선생 앞에 있는 제자리에 나아가 앉으려 할 때는...발을 다급하게 옮겨놓지 말아야 한다. 선생의 서책, 거문고, 비파 등이 앞에 있으면 꿇어 앉아서 옆으로 옮겨 놓고 타넘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소혜왕후의 [내훈] <인행장>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좌석을 밟고 건너지 않는다] 하였다. 따라서 족용중(足容重)의 가르침대로 공손하게 몸가짐을 갖도록 해 왔다.

이런 가르침은 어린아이들에게만 가르쳐 왔던 것이 아니라 여성, 남성, 학문하는 선비에게 까지도 항상 일깨워야 할 바로 강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좌식 생활을 위한 상세한 몸가짐의 태도는 예의생활을 지키기 위한 규범으로 가르쳐 왔음을 찾아 볼 수 있다.

2) 공간의 전용성과 예의생활

전통사회 주생활문화의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는 공간의 전용성, 다목적성, 융통성을 지적할 수 있

는데 이는 같은 공간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방은 침실공간이었으며, 식사공간 그리고 가족들의 일상생활과 담소가 이루어지며 집객도 함께 이루어진 다목적 공간의 실예이다. 이러한 주생활속에서는 개개인은 서로서로 예를 지키는 생활이 더욱 요구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격몽요결]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않으며 움직이지도 말라]는 네가지의 수양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고 있다. 많은 수의 가족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삼가고 조심하는 예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소절] <사진>에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물러날 때는 정성스럽고 차츰차츰 차례를 밟아야지 소나기 치림 갑작스럽게 오거나 회오리바람 처럼 급하게 해서는 안된다] 고 하였으며 <부의>에는 [머리를 빗어 떨어진 머리털을 어지럽게 버려서 옷 사이나 반찬 속에 끼이게 하여서는 안된다.] 하였다. 또한 <동규>에는 [어른보다 나중에 자고 어른보다 먼저 일어나고 등불을 켜고 불을 끄는 것은 손수 익히고, 날마다 수건과 비를 들어 닦고 쓸고, 자리를 정리하고 이불과 요를 잘 개켜 놓고, 책 붓 베투 등을 잘 쟁겨 놓을 것이다.] 라 하였다.

[예기] <내칙>에는 [옛사람들이 밤이면 이부자리를 깔고 새벽이면 치워버려 가정살림이 걸코 부질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밤에 뒹넛 것을 새벽에 길어드려 치우는 것은 그 사용이 주야로 쓸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물로써 세소 하자면 이를 반드시 치워야만 되는 것이다.] 라 하였다. 또한 [부모나 시부모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래사람이 그 잠자리를 치우고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동안, 연소자는 침상을 들고 함께 앉아서 불붙고 있어야 하며, 식중드는 사람은 길상을 들어 앉으시라고 권한다. 그런 다음 그 주웠던 이불이나 대사리를 치운다. ...이는 부모나 시부모가 아침에 일어나고 연상자가 그 이부자리를 치우고 앉을 자리를 마련할 동안의 연소자로서의 지켜야 할 예의인 것이다.] 라 하였다.

위와 같은 예의생활을 강조한 것은 방이란 침실공간과 식사공간 집객공간으로 활동 되기 위해서 더욱

청결이 중시되었고 항상 정리정돈 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예를 지키는 태도라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우기 기본적인 생활의 예를 지키는 것은 글을 하는 선비 뿐만 아니라 부녀자, 아동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행동하도록 했던 것은 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적응키 위한 행동규범으로 통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3) 남녀의 공간규범과 예의생활

안채와 사랑채로 남녀의 공간이 뚜렷이 구분되었던 조선시대의 중상류주택에서의 생활은 남녀의 예의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남녀에 따라 공간출입을 달리 해야하는 생활 예를 중시했던 규범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의생활관련 기록문헌에는 남녀별로 공간을 달리 사용하며 지켜야 할 예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혜왕후 [내훈]〈효친장〉에 보면 [남자는 일 없이 중문 안에 들어가지 말며, 아낙네는 남자가 거상하는 곳에 불쑥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계녀서]〈중요로운경계라〉에도 [사랑에 손이 오면 혹시 엿보지 마라. 엿보는 것은 그런 불관한 행실이 없으니 부디 마음 먹지도 마라] 하였다. [사소절]〈사전〉에는 남자들이 지켜야 할 예로 [무릇 남의 집 바깥 사랑에 들어갔을 때는 안방을 가까이 하여 높은 소리로 말하거나 웃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땅히 안방을 등지고 앉을 것이다.] 하였다.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지켜야 할 예의생활은 이렇듯 남녀 공간 구분에 의해 철저히 표현되었다. 율곡은 [격몽요결]〈거가장〉에서 [집안을 다스리는 데에도 마땅히 예법으로 하여 안팎 일을 분별해야 한다. 이리하여 비록 종들일지라도 남자와 여자는 한곳에 혼동하여 거처하지 못하게 한다. 남자중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 아니면 갑자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라 하였다. 즉 집을 다스리는 예법으로서도 남녀의 공간규범은 크게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규범은 더 나아가 일상기거생활 모든 영역에서 예의생활을 지켜가는 질서로도 요구되었다.

소혜왕후 [내훈]〈언행장〉에는 [남자와 여자가 섞여 앉지 말고 옷걸이를 같이 쓰지 말며, 수건과 빗을 같이 쓰지 말며, ...바깥 말을 문 안에 들이지 말고, 안의 말을 문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와같은 내용은 [계녀서]의 〈중요로운 경계라〉, [소학] 등에도 나타나 있다. 한편 이러한 공간규범에 따른 예의생활이 엄격히 지켜진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이며, 조선초 태종 3년 5월에〈부부별침〉을 명하게 되어 세조때에〈침방〉을 설치한 기록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옥구조에 반영된 것은 조선중기 이후 즉 기록으로 보아 16세기에 들어서 연산군(1495-1506) 이후(홍형욱, 1992, p.139) 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 위계성과 예의생활

신분제도나 가축내의 서열 등으로 인한 공간사용의 위계성은 그에 따른 생활의 질서로 예의생활을 요구했다고 본다. 신분상 아랫사람은 정해진 그들의 공간 - 신분상 윗사람과 다른 - 에서 생활하며 윗계층을 범하지 못하며 바른 예를 지키도록 해 왔다고 본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예의생활을 가르칠때 [문을 드나들때 잘 단지 아니함은 노비들이나 하는 것이다. 계단이나 뜰을 오르내릴때 뛰어다니거나 땅을 구르는 것은 염소나 망아지가 하는 버릇이다] ([사소절]〈동규〉)하고 경계하였다.

어른들이 기거하시는 방에서는 [부모나 시부모가 앉으려 할때 그 좌석을 받쳐들고 어느쪽으로 향해서 앉을 것인지 물은 다음에 기행하여야 하며 또 누우려고 할때는 침석을 받쳐들고 어느쪽으로 발을 향하게 해 드릴 것인지 물은 다음 기행해야 한다] ([예기]〈내칙〉) 하여 아랫사람으로서 어른들의 기거생활을 위한 예법도 강조되었다.

공간사용에서의 위계성은 장자우대가 정착되면서 그에 대응하게 되었다. 부모를 섬기고, 봉제사, 접빈객을 위해 장자의 구실이 크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장자에 대한 우대와 예를 지키도록 해 왔다고 본다. 또한 장유유서의 예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공간 사용시에도 작은 사랑방은 큰사랑방과 격을 달리했다. 부자간은 유교윤리인 부자유친을 실현하기 위해 같은 채를 쓰면서 조차도 방의 격을 달리함으로써 위계적

질서와 서열을 부여해 왔다.(홍형욱, 1992, p.165) 그러므로 생활의 위계적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서도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는 생활이 강조되어 왔다고 본다.

5) 창호의 반폐쇄성과 예의생활

주택의 내부공간은 창호지가 갖는 음의 투과로 인해 바람소리와 더불어 새소리 매미소리 등 자연음을 내부공간에 투영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음의 투과는 주택의 기밀성과 관계되어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사람들의 생활태도에 있어서 예의바른 생활을 더욱 요구했을 것이라 본다. 실외에서 하는 이야기 소리가 내부에서 잘 들릴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남소나 행동거지도 외부로 노출되기 쉬웠으므로 서로가 삼가는 생활태도나 예의를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된 예의생활이나 규범내용을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혜왕후의 [내훈]〈언행장〉에는 [장차 남의 집에 갈때 굳이 가기를 구하지 말며, 장차 대청에 오를제 인기척을 반드시 내며, 문밖에 신이 두켄레 있으며 말소리가 들리거든 들어가고, 말소리가 들리지 않거든 (은밀한 이야기를 방해할 까 보아서) 들어가지 말며, 장차 지계(방문)에 들어갈 제는 시선을 반드시 낮추히 하며, 지계문에 들어가거든 걸쇠를 공경스럽게 받들며, 눈을 사방으로 굴리지 말며, 지계문이 열렸거든 그대로 열어두고, 지계문이 닫혀 있었거든 또 닫되, 뒤에 들어갈 사람이 있거든 꼭 닫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또한 [사소절] 〈부의〉에는 다음과 같이 출입시 지켜야할 예절로 […대문안에 들어설때나 당상에 오를때에는 반드시 말소리를 내고, …아내가 사사로이 거처하는 곳에 가서 방으로 들어갈때 말소리를 내지 아니하여, 남으로 하여금 길터 앉은 것을 보이게 하였으니 이는 곧 네가 무례한 것이지 아내가 예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 하였다. [여사서] 〈내훈 덕성장〉에도 [문지방을 밟의 한 계로 삼고, 구슬 소리를 행동의 절제로 삼으며…] 라 되어 있어, 항상 언행에 조심할 것을 일깨워 왔다.

주택 창호의 반폐쇄성으로 인하여 언제 어떤 상황

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언행이 노출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몸가짐을 항상 바르게 해서 겉과 속이 한결 같도록 하라는 가르침도 있었다. [예기] 〈내칙〉에는 [마땅히 자기 몸을 바르게 하여 속과 겉이 한결같이 어두운 곳에 처해서도 밝은 곳에 있는 것 같고, 혼자 있어도 여러사람이 있는 것 같이 한다.] 고 하였다.

위와같은 규범서의 기록을 토대로 해볼때 이는 주택의 창호가 소리와 음영을 투과시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바를 뒷받침해 준다고 사료된다.

Ⅲ. 결 론

조선조의 주생활문화는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다분히 받아 형성된 우리 고유의 독특한 형식으로 창출되어 왔다고 본다. 특히 이는 당시 생활예절과도 관련성이 있었던 사실을 규범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조선시대 양반가의 주생활문화는 좌식생활, 공간의 전용성, 남녀의 공간규범, 공간의 위계성, 창호의 반폐쇄성으로 대별되는데 이에따라 자기 예의 생활이 요구되었다. 좌식생활은 고유의 인사방법인 절의 형식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좌식식생활문화, 그리고 앉을 때의 바른 자세와 그에 맞는 다소곳한 몸가짐을 지니도록 해 왔다. 공간의 전용성은 주야로 쓸모가 달리 구별되도록 공간 이용을 위해 더더욱 행동거지의 삼가 조심의 예절을 지키도록 해왔던 바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남녀의 공간규범은 여성과 남성의 생활을 구분짓고 남녀로서 지켜야 할 생활예절을 크게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남녀의 생활공간을 구분짓게 하는 가지적이며, 상징적인 생활예의의 기준이 되어 왔다. 공간의 위계성은 신분과 가족내 서열에 따라 공간 사용자를 결정짓게 하므로써 자신의 위치에서 위계적 질서를 위한 예의생활을 지켜나가도록 훈육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또한 창호의 반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실내에서 하는 자신의 언행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항상 삼가조심하며 예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왔다.

이와같은 생활속에서의 예의는 조선시대의 주생활속에서 지켜져 아직까지도 우리 생활의 일부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예의생활은 현대적 견지에서 때로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며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지나친 예문화(禮文化) 속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현대에 수용할 가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생활문화 속에서 보면 그와같은 예의생활은 타당성 있는 규범이었고, 당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때문에 이렇게 형성되어 지속되어 온 예의생활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수용되고 가치 있는 전통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의생활은 조선조의 주택구조와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바가 많으므로 현대의 주생활 속에서는 재평가를 통한 수용적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좌식생활에서의 예의는 점차 입식 내지 절충식의 생활양식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없는 바가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고유의 인사방법이나 음식을 먹을 때의 바른자세 등은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예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입식생활이 보편화 되어가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좌식 반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식탁 위에 팔을 괴는 행위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거리는 태도, 다리를 좌식상차림에서와 같이 의자위에 올려 놓는 등의 행위 등은 바른자세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한편 현대의 주생활문화속에서는 남녀의 공간규범이나 위계성의 질서 유지는 희박해 가고 있다. 지나친 남녀의 공간규범이나 위계성을 과거와 같이 강조할 수는 없는 주택구조가 대부분이고 사회상황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당시의 생활질서가 희박해지면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나타났다고 본다. 사랑채, 사랑방의 부재는 가정에서 부권까지도 변화시키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개인의 공간의 점유는 그 공간에서의 지위나 독립성까지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의 기밀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비교적 잘 유지되는 편이나 반면에 각자의 일상생활을 삼가 조심하며 타인을 존중하여

행동을 절제하는 예의생활은 그 호소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빛과 음의 투과가 가능했던 전통 사회의 주생활문화로부터 창호지의 문과 창이 시멘트와 폐쇄된 문으로 대치되면서 개인의 자유스런 공간사용 이면으로 자기통제적인 예의생활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국 주택구조의 현대적인 변화는 우리의 주생활속에서 유지되어오던 생활질서로서의 예의를 크게 변질 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위에 지적했던 몇가지의 예의생활은 우리의 주생활 문화속에서 익숙하게 지켜져 왔음을 주시하여 주택의 구조나 물리적 환경이 변화해 가더라도 일부는 지켜져야 할 바로 여겨진다. 즉, 타인이 모든 보지 않든 자기를 통제, 절제하여 지킬 수 있는 몸가짐의 예의생활이나 인사방법, 식사예법, 가정에서의 자신의 구실에 맞고 상대를 존중하는 과거의 위계질서 유지 등은 주생활 문화 속에서 지켜진 바람직한 예의생활이며, 현대적 견지에서도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원, "한국 전통주택의 내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1987.
- 2) 김홍식,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주생활편, 1985.
- 3) 서유구, 「임원경제지」
- 4) 「소학」
- 5) 소혜왕후, 「내훈」
- 6) 송시열, 「계녀서」
- 7)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2.
- 8) 「여사서」
- 9) 여중철, "취락구조와 신분구조",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전통적생활양식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10) 「예기」
- 11)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985.
- 12) 이경근, 「고암가훈」
- 13) 이길표, 주영애,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신광출판사, 1995.
- 14) 이능화, 「조선여속고」

- 15) 이덕무, 「사소절」
- 16) 이 이, 「격몽요결」
- 17) 이종필 외 3인, 「영남 지방 고유 취락의 공간구조」, 영남대학교출판부, 1983.
- 18) 이중환, 「택리지」
- 19) 조기홍 외, 「예론」,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87.
- 20) 정인국, 「한국의 건축」, 교양국사총서 14, 1985.
- 21) 주남철,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76.
- 22) 김기현, “한국 주택의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23) 김기현,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5.
- 24) 주영애, “조선조 상류주택 살림공간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1992.
- 25) 홍형옥, 「한국주거사」, 민음사, 1992.
- 26) 김기현, “한국전통 주거생활 연구(Ⅰ)” 「경희대학교논문집」 11집, 1982.